

경막외차단을 시행 받은 질식분만 산모들의 인식 조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및 통증치료실

장영호 · 박은지 · 김애라 · 전재규

= Abstract =

Survey of Recognition in Parturients for Vaginal Delivery Controlled by Epidural Block

Young Ho Jang, M.D., Eun Ji Park, M.D., Ae Ra Kim, M.D.
and Jae Kyu Cheu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Clinic,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Taegu, Korea

Background: At our institution, We have controlled pain during vaginal delivery with epidural block since 1986. We designed a questionnaire for parturients to analyz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epidural block.

Method: The self-questionnaire were sent to parturients(N=200), who had epidural block to control labor pain during vaginal delivery. The questionnaire covered topics dealing with motivation, fear, satisfaction and complications, of epidural block.

Results: Motivation by an experienced person was 72.5%(145 parturients), fear of epidural block was 66%(132 parturients), and satisfactory response was 84%(168 parturients). Parturients who knew the role of anesthesiologist numbered 105(52.5%). Scarcely, 46 parturients displayed confidence for safety of fetus; 111 parturients experienced more than one complications. But special therapy for complications were not necessary.

Conclusions: Publicity through mass-media and direct contact will improve the recognition and merit of epidural block by parturients as well as the role of th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Key Words: Anesthetic technique: epidural. Pain: labor.

서 론

경막외차단은 질식분만을 하는 산모들에게 분만 통을 없애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병원에서만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서는 첫째, 병원 자체의 기술적 혹은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둘째, 무통분만에 대한 산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과 기술을 받아야 할 산모들의 인식부족 셋째, 무통분만으로 인해 유발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합병증 즉, 주어진 약제로 인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요추천자로 산후 요통을 유발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¹⁾

본원 마취과 및 통증치료실에서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경막외차단을 이용하여 10,000명 이상의 산모들에게 경막외차단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들 중 산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무통분만을 받게된 동기와 받기 전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동시에 무통분만을 받은 후에 산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막외차단후 발생된 합병증들을 살펴봄으로써 개선을 통하여 차후 무통분만 시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3월부터 6월까지 본원 산실에서 질식분만을 받은 산모들 중 경막외차단으로 무통분만을 시행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방법은 분만 다음날 병실을 방문하여 설문 목적을 미리 설명한 후 설문 내용에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무통분만을 알게된 동기는 무엇인가?
 - ① 주위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
 - ② 산실에 입원하고 나서 알게 되었다.
 - ③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 ④ 본인이 의료인이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
 - ⑤ 기타
- 2) 무통분만 결정시 두려움이 있었는가?
 - ① 전혀 없었다.
 - ② 약간 있었다.
 - ③ 많이 있었다.
- 3) 두려움이 있을 경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가?
 - ①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② 확실하게 통증이 없어질 것인가?
 - ③ 시술이 아프거나 위험하지는 않은가?
 - ④ 기타
- 4) 무통분만 시행 후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① 매우 좋다
 - ② 좋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나쁘다
- 5) 무통분만 시술을 마취과에서 시행하는지 알고 있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 6) 합병증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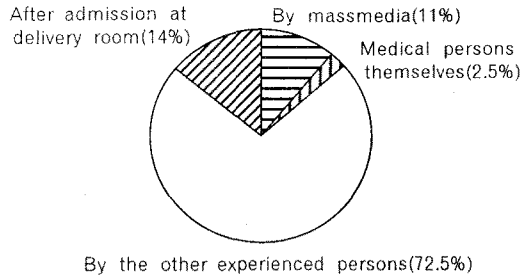


Fig. 1. The question was "How did you get the information of the epidural block for vaginal delivery?".

- ① 불완전한 통증 제거
- ② 한 쪽만 효과
- ③ 하지 운동 불능
- ④ 소양증
- ⑤ 오심 및 구토
- ⑥ 소변 장애
- ⑦ 요통
- ⑧ 기타

결 과

설문에 응답한 산모들의 평균 연령은 27.2 ± 5.3 세였으며 출산력은 초산인 산모가 71%, 2회인 산모가 25%, 3회 이상인 산모가 4%였다. 이중 과거 분만시 무통분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산모가 18%였으며 나머지 82%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받은 산모들이었다.

무통분만을 알게된 동기에 관한 질문에 72.5%의 산모들은 주위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14%의 산모들은 산실에 입원한 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 11%의 산모들은 신문을 통한 대중매체에서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본인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경우가 2.5%(5명)를 차지하였다(Fig. 1).

무통분만 결정시 두려움이 있었는가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에 불과하였으며, 59%의 산모들은 약간 있었다, 7%의 산모들은 많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조금이라도 무통분만에 관하여 두려움이 있었던 산모들이 66%를 차지하였다.

두려움이 있던 산모들의 경우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중 59.1%는 태아에게 나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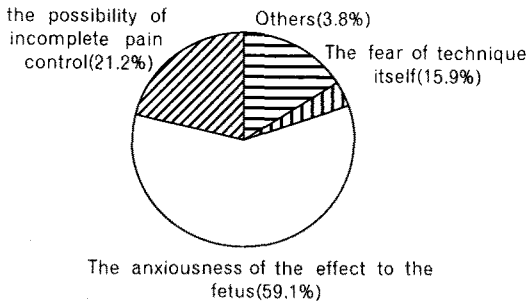


Fig. 2. The question was "Did you feel fear in epidural block for vaginal delivery?". The 66% of parturients answered that they felt fear in epidural block. Most of them were very anxious about the effect to the fetus. The other answers included the anxiousness of backache, paralysis of lower extremity and the death of shock.

향이 미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였으며, 21.2%의 산모들은 확실한 통증 제거가 의심이 되었다고 하였다. 15.9%의 산모들에서는 시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3.8%의 산모들에서는 기타의 응답으로 요통 발생의 염려(2명), 하지 마비의 우려(2명), 쇼크 등으로 인한 사망(1명)의 가능성을 걱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Fig. 2).

무통분만 시행 결정시 산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점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23%의 산모들만이 태아에게 안전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7%의 산모들은 잘 모르겠다, 약간 혹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대상 200명 산모들의 무통분만 후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매우 좋다", "좋다", "잘 모르겠다", "나쁘다"의 4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좋다"고 느낀 산모가 91명,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산모가 77명으로 168명(84%)의 산모들에서는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29명의 산모들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고, 3명의 산모들에서는 "나쁘다"는 응답을 하였다. 만족도가 "나쁘다"라고 응답한 3명의 산모들에게서 그 이유로는 불완전한 통증 제거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무통분만을 주위에 권유하고 싶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193명(96.5%)의 산모들은 그렇다고 응답하여 만족도의 측정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29명 중에서도 25명이 무통분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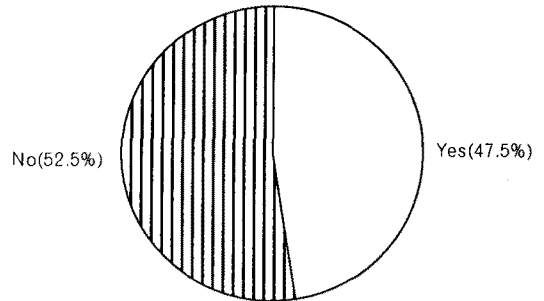


Fig. 3. The question was "Did you know that the anesthesiologists had performed the epidural block for vaginal delivery?". Only 47.5% of parturients answered that they had known which epidural block had been performed i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관하여 호응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무통분만을 실시하는 마취과에 대한 산모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무통분만을 마취과에서 시행하는지 알고 있었는가를 질문한 결과 47.5%의 산모들만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2.5%의 산모들은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에서 무통분만을 시행 받기 전에는 마취과의 무통분만에 대한 역할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다(Fig. 3).

본 설문문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경막외차단을 이용한 무통분만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23%의 산모들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한 반면 30%의 산모들은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24.5%의 산모들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22.5%의 산모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단지 23%의 산모들만이 무통분만이 태아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경막외진통을 이용한 무통분만 시행시 발생된 합병증들을 조사한 결과 약간의 통증 잔류가 55건, 오심 및 구토가 19건, 요통이 18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명 대상 산모 중 111명에서 134건의 합병증을 호소하여 상당히 많은 산모들에서 합병증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병증이 발생된 산모들에서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한 예도 없었으며 모든 산모들의 정상적인 퇴원이 가능하였다.

고 찰

무통분만의 발전과 보편화는 비단 산모들의 진통을 제거하여 줄 뿐 아니라 더욱 나아가서는 마취과와 마취과 인원의 영역을 보다 넓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경막외차단을 이용하여 무통분만을 시행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무통분만에 관한 산모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이를 근거로 무통분만의 보편화를 위하여 마취과 의사가 차후 하여야 할 일이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막외차단은 무통분만 뿐 아니라 산과 마취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위마취로서²⁾ 경막외차단을 통한 무통분만술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미 전등³⁾이 발표한 바 있으므로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는 산모들의 무통분만에 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산모들이 무통분만을 알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서 72.5%의 산모들은 주위에서 경험을 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11%의 산모들만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무통분만을 알게 된 산모들이 11%에 그친다는 점은 아직도 많은 산모들에서 무통분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며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산전 교육을 통해 미리 산모들에게 무통분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무통분만을 시술 받은 산모들에서 시술 결정시 두려움이 있었는가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66%의 산모들이 실제 무통분만을 시행 받을 것을 결정하고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이전에 무통분만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의미한다. 두려움을 가진 산모들 중 가장 많은 원인으로서는 태아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를 염려하여 산모 특유의 모성애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염려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말로 통증의 제거가 가능한지에 관한 의심을 가졌다고 응답하였다. 기타의 두려움으로는 시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 혹시 시술 후 요통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신경에 약을 주사하여 합병증이 발생되

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산모들도 있었다. 그러나 무통분만은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하며 게다가 분만 2기에 산도를 이완시켜 주므로 인하여 회음부의 열상을 방지 할 수 있고, 태아 두부의 손상도 적게 하므로 모체와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수한 시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모들의 두려움은 상기와 같은 기본 지식을 무통분만을 시술하고 관리하는 마취과 및 산과 의사가 산전에 산모들에게 직접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원의 경우 설문 조사에서 63%라는 산모들이 시술의 결정시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빈도이므로 무통분만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산모들에게 하여 줌으로써 이러한 두려움의 빈도를 감소시켜야 하겠다.

무통분만을 실시한 후 산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4%의 산모들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하였다. 설문 대상 산모들 중 63%의 산모들이 무통분만 시행 결정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84%의 산모들이 시행 후 만족하였다고 응답한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후에야 무통분만을 만족스럽게 느꼈다는 것으로 이것이 차후 또 다른 산모들의 무통분만 결정에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고 본다. 또한 96.5%의 산모들은 주위의 산모들에게 무통분만을 권유하고 싶은 방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본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모들이 직접 무통분만을 경험한 후 무통분만에 관한 인식이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결론이다.

무통분만의 시행을 마취과에서 하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서 52.5%의 산모들은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무통분만 시술이 과반수 이상의 산모들에게 마취과의 역할을 인식시켜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결국 일반인들에게 마취과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새롭게 할 후 있다는 점에서 무통분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된다.

경막외차단을 이용한 무통분만 시행 후 합병증은 111명에서 통증 잔류, 오심 및 구토, 요통 등이 발생하였으며 23명의 산모들에게서는 두 가지의 합병증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중 불완전한 통증 제거가 55건으로 가장 많은 합병증으로 나타났다. 200명의 산모들 중 134건의 합병증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합병증 발생률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하여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합병증으로 나타난 불완전한 통증 제거는 실제 산모들이 분만 중 심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한 것이 아니며 불완전한 통증으로 인하여 무통분만 시행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산모들은 3명에 불과하였다. 즉, 불완전한 통증 제거가 있었다고 응답한 산모들도 무통분만으로 인한 통증 제거에 비교적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심과 구토가 19건으로 나타난 것은 이등⁴⁾의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것에 비해 높은 빈도이나 무통분만 자체만이 오심과 구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0.25% bupivacaine에 혼합한 fentanyl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고 분만 과정 자체가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구분하기가 힘들다. 결국 200명의 산모들 중 111명에서 총 134건의 합병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경막외차단을 이용한 무통분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합병증은 거의 발생되지 않았으며 이는 무통분만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 줌으로써 산모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의 산모는 한 예도 없이 모든 산모들에게서 정상적인 퇴원이 가능하였다.

경막외차단을 이용한 무통분만은 종교적, 생리학적,

모체와 태아 보호 측면 등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는 시술이며,¹⁾ 이 시술이 산모의 혈액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결코 되지 않기에²⁾ 무통분만에 관한 산모 및 일반인들의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대중적인 홍보와 함께 무통분만을 시행 받는 산모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여 줌으로써 가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것은 무통분만 자체만이 아니라 마취과 전체의 인식 향상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전재규: 임상 산과 마취 1판.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pp19-22.
- 2) Bonica JJ, McDonald JS: Principles and practice of obstetric analgesia and anesthesia. 2nd ed. Malvern, Williams and Wilkins. 1995, pp773-4.
- 3) 전재규, 김애라: 경막외마취에 의한 무통분만. 대한마취과학회지 1985; 18: 257-61.
- 4) 이윤석, 채영근, 오영준, 김혜경, 정춘근: 무통분만에 사용한 경막외 통증자가조절. 대한마취과학회지 1997; 32(2): 274-80.
- 5) 이상하, 장영호, 전재규: 경막외진통을 이용한 무통분만이 임산부의 혈액학 변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마취과학회지 1996; 9(1): 63-8.